

OOPSLA·ISSTA 2026 TRIP REPORT

2026.10.05. – 10.09.

Oakland, California, USA

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 분석 연구실 김민수

1. 들어가며

이번에 OOPSLA 2026에 채택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학회에 참가하였다. 학회 참석을 위해 해외로 나간 것은 3년 반 만이었다. 오랜만에 해외 학회에 참가한 만큼, 그곳에서 경험한 일과 느낀 점을 간단히 기록해 보려 한다.

OOPSLA는 프로그래밍 언어 분야의 최우수 학회이며, 올해는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의 최우수 학회인 ISSTA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나 외에도 연구실 학생 두 명이 각각 ISSTA 툴 페이퍼와 포스터를 발표하게 되어 두 학회 모두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학회 일정은 총 5일이었다.

2. 학회 참여

2-1. 학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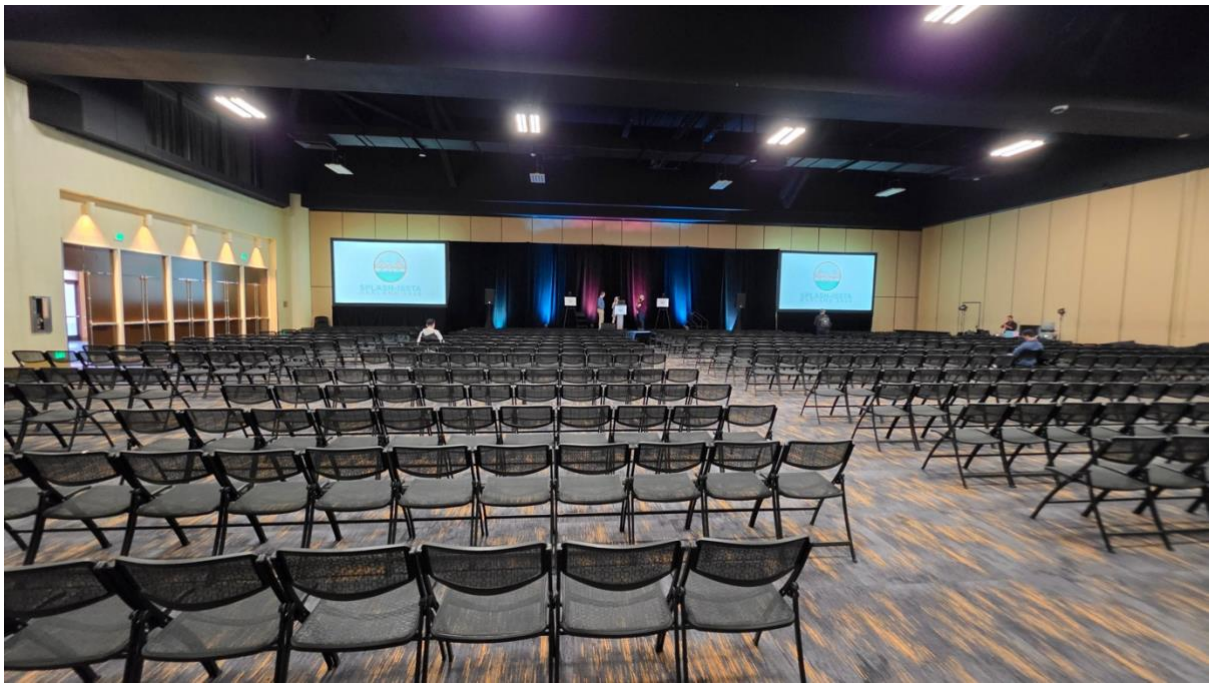


그림 1 학회장 East Hall 1

학회는 미국 오클랜드의 한 호텔에서 열렸는데, 이전에 참석했던 학회들과 비교하면 발표장의 규모가 유독 컸다. 위 사진은 내가 발표한 East Hall 1의 모습인데,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가 놓여 있었지만 실제로 앉아 있는 사람은 서른 명 정도였고 나머지 좌석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행사장 규모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식사와 간식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세션은 매일 오전 8시 30분이나 9시에 시작

했음에도 커피는 항상 10시 30분부터 제공되었고, 간식으로 나온 빵도 한두 종류뿐이었다. 심지어 두 학회가 동시에 진행되었음에도 뱅퀫이 없었고, 마지막 날에는 점심조차 제공되지 않아서 우리 연구실 학생들, KAIST PLRG 연구실의 학생 두 분과 함께 학회장 밖의 음식점에서 식사했다. 물론 학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다른 학회만큼의 참가비를 낸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2-2. 논문 발표

이어서 내가 진행한 논문 발표에 관해 적어 보려 한다. 발표는 학회 둘째 날 오전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연구 내용 발표 15분과 질의응답 3분을 합쳐 총 18분이 주어졌다. 평소 같았으면 영어로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겠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더 어려웠다. 10월 6일이 발표일이었는데, 10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논문이 있어 그전까지는 발표 자료를 만들 여유가 없었다. 출국일인 10월 4일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자료를 만들었다. 결국 발표 전날이 되어서야 자료를 완성할 수 있었고, 가까스로 대본까지도 작성할 수 있었다. 다행히 실제 발표는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된 것 같다.

발표를 마친 뒤에는 학회장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편안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는데, 이건 청중으로 참석했을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점이었다. 개인적으로 연구실 세미나는 어느 정도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다고 느껴 왔는데, 학회에서는 청중과 세션 체어 모두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발표를 듣고 있었다. 한편, 영어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발표는 대본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비교적 수월하지만, 질의응답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좀 있었다. 무엇보다 질문자의 영어를 정확히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껴, 앞으로 듣기와 말하기를 꾸준히 연습하려 한다.

2-3. 기억에 남는 발표

내 발표 외에도 여러 발표를 들었다. 그중 특히 기억에 남은 두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1) **Process-Centric Analysis of Agentic Software Systems**

   이 연구는 LLM 기반 에이전트의 실행 단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언어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이전트의 문제 해결 과정을 분석 및 평가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내가 이번에 새로 제출한 논문의 연구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찾아본 에이전트 관련 논문이었다. 내 연구와도 맞닿아 있어 관심 있게 발표를 들었는데, 발표자가 설명을 매우 잘했고 자료도 잘 구성했다는 인상이 남았다.

2) **Finding the Bugs Users Would Find: From Sapienz to Autonomous Agents**

   이 발표는 연사가 2016년에 개발한 Android 앱 테스팅 기술인 Sapienz가 Meta의 Facebook, Instagram, WhatsApp 등 여러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CI에 통합된 과

정과, 이후 약 10년간 기술을 확장해 적용해 온 경험을 다뤘다. 발표를 들으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를 진행하며 구현체를 만들다 보면 이것이 실제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을지 스스로 확신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런 점에서 연구 결과를 현업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발전시켰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놀라웠다. 언젠가는 나도, 규모가 작더라도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어졌다.

3. 학회 외 경험

학회 참석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오클랜드가 관광지로서 특별히 매력적인 도시는 아닌 것 같았지만, 그래도 둘러볼 만한 곳이 꽤 있었다. 교수님과 연구실 졸업생이신 정보보호대학원 소순범 교수님, 이명호 박사님과 함께 주변을 둘러보고 음식점에도 가 보았으며, 동행한 연구실 학생들과도 가능한 한 여러 곳을 다녀보려 했다. 아래 사진은 오클랜드의 메릿 호(Lake Merritt)이다. 도시 한가운데에 이처럼 자연경관이 잘 보전된 공간이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학교 근처에도 성북천이 있지만, 길이 다소 좁아 메릿 호만큼 좋은 인상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림 2 메릿 호 (Lake Merritt)

이 밖에도 교수님 덕분에 Tesla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Robotaxi를 이용해 볼 기회가 있었다. 직접 경험한 자율주행 기술은 무척 놀라웠다. 차량에는 아래 사진처럼 자율주행 시스템이 인식한 주변 상황을 보여 주는 디스플레이가 있어, 주변 차량과 도로를 어

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기는 했지만, 갓길에 차를 세울 때를 제외하면 그 사람이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아도 차량이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운행했다. 줄곧 자율주행 시스템 테스팅을 연구해 왔지만 실제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연구 대상으로만 접하던 기술을 직접 경험해 보니 그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었고,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연구에 대한 동기부여도 크게 되었다.



그림 3 Tesla Robotaxi

4. 소감 및 마무리

해외 학회에 채택된 논문을 직접 영어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큰 문제 없이 발표를 마쳐 다행이었지만, 귀국한 뒤 돌아보니 영어 실력뿐 아니라 발표 자료에도 보완할 점이 많이 보였다. 그래도 직접 경험해 본 덕분에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번에 느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며 더 나은 발표를 준비하고 싶다.

연구를 시작한 순간부터 학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논문이 두 차례 거절된 끝에 세 번째 투고에서 채택되기까지 오학주 교수님과 소순범 교수님, 세미나와 워크숍에서 피드백을 주신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또 발표 당일에는 USB-C to HDMI 젠더가 없어 곤란했는데, 일리노이 대학의 Devansh Jain님이 빌려주셔서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학회 기간 함께 다녀 주고

밥도 사 준 연구실 선배와 후배들에게도 고맙다. 평소에도 그러려 노력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내가 받은 도움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오클랜드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함께 간 사람들 모두 무사히 귀국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에 두 학회에 연이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오학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